끝없는 지장보살의 원력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㉛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3

우란분절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법당에 울려 퍼지는 낭랑한 스님들의 염불이 그리워진다.

"지장보살님께 일심으로 귀의하며 청하옵나이다. 자비인연 고루짓고 온갖 선행 모두 쌓아 고통 받는 모든 중생구하시려 육환장을 짚고 지옥문을 활짝 여시니 손바닥위의 여의주의 밝은 빛이 널리 대천세계까지 빛나니 염라대왕의 업경대 앞에서 언제나 계시며 남쪽 염부제중생들이 지은 공덕을 증명하려는 대비대원 대자성존의 지장보살마하살이시여, 엎드려 비옵나니 자비로써 이 도량에 오시어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꽃과 향을 공양하며 청합니다.(3번)"

지장불공을 할 때 스님이 요령을 악기로 사용하며 하는 염불로 지장보살을 청하는 '정사(請辭)'다. 이처럼 불공 할 때는 불보살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해야 하는데 지장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지장경〉에 담겨져 있다. 이 경은 모두 13장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 경을 통해 부처님에게 지장보살의 존재의미와 원력과 수행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치고 지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제1장은 도리천에서 우주법계에서 모인 엄청난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마야부인과 지장보살을 만나게 하는 신통을 보이시며 이 두 분의 원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가설 무량아승지 지옥세계에 출장 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장보살들의 아바타(分身)들이 법회에 모인다. 이들이 다 모이자, 부처님은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가 있을 때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수기를 받게 하고, 나의 시대인 56억 7천만 년이 지나고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여의어 해탈할 근기로 교육시켜 수기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장은 석가부처님께 수기를 받는다. 제3장은 마야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중생의 업연으로 인한 과보에 대해 질문하자 세밀하게 중생들의 선악업보와 지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염부제 중생이 지은 업으로 받는 과보에 대해 광목을 등장시켜 설명하고 있고. 제5장은 보현보살이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이 겪는 지옥의 과보를 알려달라고 하자 온갖 지옥의 명칭과 그곳의 모든 환경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6장은 부처님이 모든 보살마하살과 천룡팔부에게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하고 제도하는 일을 칭찬하시며 모두 이 경전을 잘 옹호하라고 하신다.

제7장은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중생들은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 속을 걷는 것과 같이 갈수록 피곤하고 무겁고 수렁에 빠져드는 삶을 살고 있어 너무 불쌍하다. 간혹 선지식을 만나면 그 곳을 벗어날 수도 있는 길이 열리듯이, 살아서 악업을 행한 이가 갑자기 죽어도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49일 동안 착한 공덕을 닦아주면 죽은 이도, 산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듣던 대변장자가 정말로 명을 마치고 죽을 때 그를 위해 공덕을 닦고 49재를 지내면 죽은 이가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냐고 묻는다. 지장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에 불보살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는 반드시 해탈한 인연이 생긴다. 그의 권속이 49재를 지내며 선업을 쌓는다면 죽은 이는 7분의 1의 공덕으로도 충분히 해탈하고 나머지 6의 공덕은 산사람에게 돌아가니 산 이와 죽은 이가 다 함께 무량복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제8장은 염라와 그의 권속인 악독귀왕등 대귀왕들과 그들 아래 백천만명의 소귀왕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도리천에 도착해서는 중생들이 지옥에 자꾸 찾아오니 지장보살이 나서서 못 오게 해 달라고 청한다. 제9장은 중생이 목숨을 마칠 때에 부처님의 명호를 본인이나 가족이 부르기만 하여도 한량없는 죄업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제10장은 보시한 공덕을 어디에 회향하느냐에 따라 복락의 결과가 다름에 관한 것이다. 제11장은 지신(地神)인 견뢰지신에게 모두 지장의 존상에 예배하고 〈지장경〉을 읽고 고해에서 벗어나게 되니 이들을 옹호하라고 부촉하는 내용이다. 제12장은 관세음에게 지장보살에 대해 보고 듣기만 하여도 이익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제13장은 허공장보살에게 지장을 예배하고 칭송한 공덕이 28종의 이익으로 나타나니 천상과 인간에 부촉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서울 반야사 주지〉

빈궁함 부처님께 바치니 만사형통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㉚ 수행이 해결한 먹고사는 문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바로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장에서 오래 머물며 사회 진출이 늦어지게 되자 '먹고사는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취직할 적기를 놓치면 애써 얻은 명문대학 출신의 이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식께서는 이런 내 마음을 아시고 "〈금강경〉 공부는 세상에 뒤떨어지는 공부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욱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공부다. 자신이 빈곤하다는 생각, 장래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러하면 든든한 부처님 광명이 임할 것이다. 이 부처님 광명은 그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제공할 것이니 아무 염려말고 〈금강경〉 공부에 전념하라."

모든 문제를 부처님께 바치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어느 날, 바쳐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량에 쥐가 모여들어 소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쥐약이라도 놓아 퇴치하고 싶으나 불살생의 계를 지켜야 하니 그 자체가 화두였습니다. 고민 끝에 선지식께 쥐 퇴치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쥐약을 놓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쥐를 목장에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쥐가 싫다, 쥐가 많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렇게 바치면 쥐가 사라집니까?" "어째서 쥐가 그렇게 들끓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쥐의 마음 즉 빈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쥐가 싫다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 마음속에 쥐의 마음인 거지 마음, 거저먹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침 어떤 도반이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법당에 선물하였습니다. 고양이를 보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고양이는 수많은 쥐에 겁을 먹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 야생 고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수도장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두당 평균 10kg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이 정도 생산량으로 우리 도반들이 도량에서 자급자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거지 마음이 있기에 쥐들이 들끓는다는 말씀을 들은 후, 빈궁한 마음이 적은 생산량과도 관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의 거지 마음이, 생산량이 적어도 이에 만족하며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선지식께서는 불립문자란 글을 대할 때 궁리(알음알이)하지 말라는 뜻이지, 글의 참 뜻을 알려는 노력 즉 연구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밖에서는 자료를 찾으며 연구도 병행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산유량 증산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실천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빈궁함이 사라지게 되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생으로 달아난 고양이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야생화된 고양이는 과거 쥐를 보면 달아나던 때와는 달리 슬슬 쥐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쥐들도 야생 고양이 한 마리의 기운에 점차 압도당하면서 하나 둘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쥐의 궁한 마음, 갉아먹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쥐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선지식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쥐가 사라짐과 동시에 목장에서의 우유 생산량 증가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임제 할 '이 뭣고'

임제의현(臨濟義玄) 선사가 황벽 스님의 문중에서 수행할 때 그 행(行)이 순수하고 깊이가 있으므로 윗 수좌인 목주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 와 있는 지가 얼마나 되는가?"

"3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실(祖室)스님에게 법을 청한 적이 있는가?"

"아직 묻지도 않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어찌 조실스님께 불법의 대의(大義)를 묻지 않는가?"

이에 임제 스님은 바로가서 물었다.

그가 묻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은 바로 몽둥이로 후려갈기니 왜 맞는지도 모르고 기어 나왔다.

목주 스님이 다시 물었다.

"문답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묻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은 바로 후려 갈겼습니다. 저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통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가서 물어보게"

이와 같이 세 번을 묻고 세 번을 얻어맞고 난 후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임제 스님이 하직 인사를 올리자 황벽 스님이 말했다.

"너는 고안탄두(高安灘頭)의 대우(大愚)스님에게 가거라. 반드시 너를 위해 설(說)해 줄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에게 가니, 대우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황벽 스님의 휘하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무슨 말이 있었는가?"

"제가 불법의 대의를 세 번 물었다가 세 번 몽둥이로 얻어 맞았는데,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벽 스님이 그렇게 노파심(老婆心)이 간절하여 너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바보같이 묻는구나"

그러자 임제 스님이 이 말에 크게 깨닫고 혼자말 처럼 이렇게 말했다.

원래황벽불법무다자(元來黃蘗佛法無多子)로구나!

이 말을 들은 대우 스님이 바로 임제의 멱살을 움켜쥐고 말했다.

"이 오줌싸개 새끼야, 방금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더니 이제는 "황벽불법은 별것 아니다라며 도대체 너는 무슨 도리(道里)를 보았느냐, 빨리 말해라"고 하니,

이에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번 쥐어박았다.

이렇게 깨친 도리(道理)를 전하니, 이에 대우 스님이 말했다.

"너의 스승은 황벽이지 나는 아니다"

그러자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을 하직하고 다시 황벽 스님에게 돌아왔다.

"네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어느 때에 깨닫겠느냐?"

임제 스님이 말했다.

"다만 조실(祖室)스님이 노파심절(老婆心切) 하기 때문입니다."

"대우 스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임제 스님은 대우 스님과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니, 황벽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붙잡아서 한 번 몽둥이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군."하시니, "뭐 멀리 갈 것까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먹이십시오 하며 임제 스님이 손바닥으로 황벽선사의 뺨을 갈겼다.

"이 미친놈이, 여기에 돌아와서는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그러자 임제 스님이 바로 '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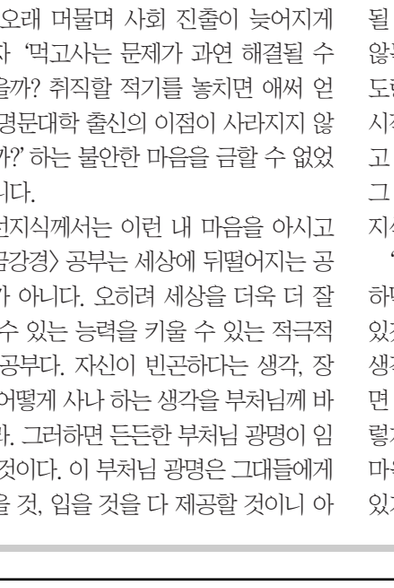
이렇게 언어와 문자를 떠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스승의 뺨을 갈겨 인가(認可)를 받으면서 임제할의 선종 가풍을 세웠다.

우리도 생활속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 '이 뭣고'가 일행삼매(一行三昧)가 되도록 한다면 금생에 생사병(生死病)에서 꼭 벗어나게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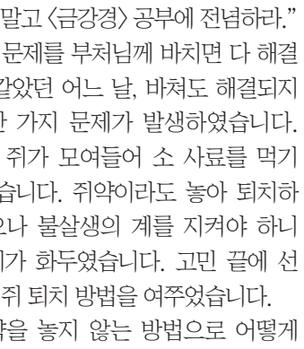
〈남양주 선재사 주지〉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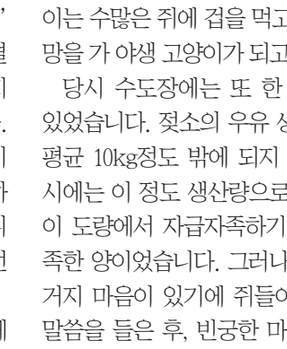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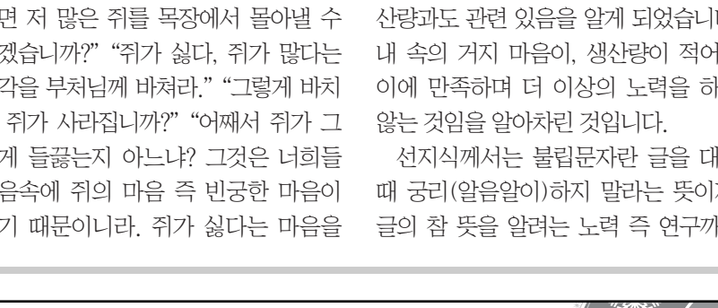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 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